수가녀의 일하독작(日下獨酌)

(요4:1~19)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수가녀의 일하독작(日下獨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수가 여인의 일하독작(日下獨酌)'
일하독작이라는 말은 '해 아래서 혼자 마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나라 시인인 시선(詩仙) 이 백의 시 중에 월하독작(月下獨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달 아래서 혼자 마신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꽃 사이에 술 한 병 놓고
벗도 없이 홀로 마신다.
잔을 들어 밝은 달을 청하니

그림까지 세 사람이 되었구나.
달은 본래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흉내만 낼 뿐이지만.
잠시 달과 그림자를 벗하여
마음껏 봄날을 즐겨보리라.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달은 서성이고
춤을 추면 그림자는 어른거린다.
깨어있을 때 함께 서로 즐기지만
취한 뒤에는 각자 흩어지리니,
속세 떠난 맑은 사귐 길이 맺고자
멀리 은하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네.

마지막 부분에 '속세 떠난 맑은 사귐 길이 맺고자' 이게 이 시를 지금 읊고 있는 이 백의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속세 떠난 맑은 사귐 길이 맺고자'
이 세상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 맑은 사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귐 속에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떠난 진정한 인격 대 인격으로의 만남이 그립습니다.
달이 휘영청 떠올라 밝은 달빛에서 따스한 봄날 밤 술잔을 기울이는데, 이해관계를 떠난 사귐의 따라 불러낼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마음에 달을 향하여 잔을 높이 들면서 '달아, 내 벗이 되어다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자기의 그림자를 일깨웁니다, '너도 나의 벗이 되어다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달과 그림자가 나와 함께 즐기며 이 술 한 잔을 마시자!
그러나 압니다, 달이 나에게 어떻게 벗이 되어줄 것이며, 그림자가 나에게 어떻게 벗이 되어줄 것이냐?
달처럼 이해관계 없이 나를 만나줄 벗, 그림자처럼 묵묵히 이해관계 없이 나를 따라줄 벗, 멀리 은하의 세계 속에서나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이 외로움이 바로 갈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타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생수이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갈증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수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생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타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바로 나에게 생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바로 나에게 생수입니다.
그런 나를 발견할 때에 내가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속한 한 마을에서 여섯 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이건 보통일이 아니죠, 적도에 가까운 중동지방에서 정오면 해가 완전히 꼭대기에서 머리끝을 태울 정도로 강렬하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는 절대로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때나 이른 아침 선선한 때를 골라서, 그것도 동네 바깥이라 위험하니까, 여러 동네 여자들이 함께 모여 물을 길러 나와서 물을 긷고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관례요,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이라고는 다닐 수 없는 가장 뜨거운 해가 작렬할 때 혼자 나옵니다, 아마 물을 긷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물을 들이키지 않았겠습니까?
일화독작(日下獨酌)입니다.
술은 아니지만 이 백이 달 아래서 혼자 술을 마신 것과 마찬가지로, 작렬하고 있는 태양 아래서 혼자 물을 마시고 있는 이 여인 필유곡절(必有曲折)이죠, 무슨 곡절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얘기가 다 끝나도록 40절이 넘도록 진행이 되는데, 여인이 물을 떠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끝내 물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대화를 트시기 위해서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주님은 비약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해라!' 즉, 여인의 갈증을 보신 겁니다.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의 갈증을 보셨고 인생의 갈증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서 생수를 구하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물 한잔 달라고 말씀하시던 분께서 여인에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서 지금 네 속에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마치 지금 이 중동 땅에 해가 내리쬐는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우물가에서 태양빛에 타들어가듯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너 자신에게 내가 생수를 줄 테니까 내게 생수를 구해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생수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인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생수를 줄 테니까 내게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그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아직도 생수라는 게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를 달라는 여인의 요청에 대해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대부분 여인의 경우에, 남편이 일단 이 세상 안에서 생수의 1차적인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지금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의도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고,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남편에 관한 대화가 왜 갑자기 불쑥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생수의 근원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생수가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자기의 마음 안에 품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 안에 가두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안에서 내가 가두어져 있고, 사랑 안에 감춰져 있고, 마음 안

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여자들의 마음은 황홀합니다.
그래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프러포즈를 할 때 여자들이 흥분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멋진 남자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까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고 나를 마음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황홀해지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황홀한 느낌을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쁩니다, 돈을 많이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사업이 남편의 마음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 안에 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어다 준 돈으로 마음대로 쇼핑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쇼핑이 즐겁고 쇼핑이 생수의 역할을 해줍니다, 마음에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그러나 산처럼 쌓인 명품가방, 정육점의 고기처럼 걸려있는 그 많은 명품 옷들, 아무리 사도 아무리 들고 다녀도 내 마음의 갈증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를 않습니다.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생수로 삼아 갈증을 해소해서 결혼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멀어집니다.
돈이 있어서 명품 백을 사니까 좋아서 자꾸 사보지만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생수가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상황 속에 있는 내가 생수입니다.
그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변하고 내가 좋아하는 상황도 좋아함이 변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좋고 있지만 않는 거예요.
좋아하는 상황도 좋아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변하고 또 내가 변하기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나', 그 상황 안에 있는 '나'가 더 이상 나에게 생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좋아하고 내 안에 있는 너를 발견하게 될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안에 네가 들어있

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네게 목마름이 없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남편을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돈으로 주어지는 좋은 상황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는 상황과는 다르게, 영원히 시간을 뚫고 나가는 생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니고데모와 이 수가 성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상황 바람직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남이었습니다.
‘너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다 죽어라,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은 다른 여자의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해 많은 상황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도 모세오경을 따르고 있던 자들입니다.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로 취급했지만.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법대로라면 여자는 세 번 이상은 결혼이 안 됩니다, 즉 두 번까지만 결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섯 번 결혼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여자로서 이혼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지 못하던 시대에 다섯 번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까지는 괜찮지만 세 번 이상은 안 되는데도 계속 결혼을 했다는 것은 부도덕한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여자의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갈증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을 보시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남자가 다른 여자의 남자로서 이 여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은, 결혼해줄 마음도 없는 겁니다, 이전의 다섯 남자만큼도.

결혼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같이 사는 것은 이 남자는 여자로서 최소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장치에요, 달리 살 방법이 없습니다.
남자한테 붙어있으면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자가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것을 볼 때,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부도덕하고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비웃으면서 거리를 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더운 시간에 비웃고 경멸하니까 혼자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상황은 자기를 사랑해서 품어주는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없습니다, 다섯 남편을 거치는 중에 자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셔서 딸로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보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어서 남편에게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있어서 이웃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메말라버렸습니다, 어디서도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내가 인정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할 데가 없는 여인인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내 안에 품을 테니 나를 믿어라!'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어서 내 안에서 너를 발견하게 될 때, 네 마음이 황홀해지고 기뻐지는 이것은 시간을 뚫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생수가 될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하독작(日下獨酌).
월하독작을 하는 이 백의 외로움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외로운 여자, 니고데모와 비교해볼 때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 여자, 그 누구의 안에서도 바람직한 상황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여자, 일하독작 하고 있던 이 여자, 뜨거운 햇빛 아래서 혼자 물을 긷고 물을 마시던 이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수를 아침마다 날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나를 발견하며 행복해하고 황홀해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이 여인 앞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말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내가 나를 그 속에서 발견하면 황홀해지고 기뻐지고 좋은 그런 대상이 생수의 근원이고, 그 근원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나에게 생수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너'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고, 나와의 관계에서다시 태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의 상태에서 여인의 상태로 이전해서 옮겨가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과 상황들에 대해 다 죽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복음 중의 복음이 오늘 나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혼자 물을 뜨고 물을 마시던 이 여인의 궁극의 갈증이 주님을 만나므로 해결되듯이 우리 또한 똑같이 이 수가성 여인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